

곧 시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하지만 투자예산에 비해 최대
 그런가 하면 유지 보강 사업 의 효과를 올릴 수 있는 견실
 에는 모두 24억9,600만원이 시공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
 책정됐는데 외연도항의 방과 출 작정이다. ㉔
 제 보강 등에 10억원, 위도항 서해어항사무소의 입장은
 북방파제 보강에 6억원, 서망 결코 넉넉한 예산이 되지 못

東·海·漁·港·事·務·所

안목·수산·오산·구산항 修築계속

維持補强사업으로 活用度 높여

일부 漁港 修築못해 아쉬움

元 康 喜<水産廳 東海漁港事務所長>

동해 어항사무소는 동해· 서해·남해 3개 어항 사무소 가운데서도 그 중요성 에 비해 그동안 다소 제 위치 를 찾지 못한 면이 없지 않았 다.

예산 면이라든지, 인원 면에 서 여러모로 낮은 수준을 유지해 왔기 때문에 이런 인식이 있지 않았나 싶다.

그러나 다행히 최근 동해어 항사무소의 직제가 서해나 남 해와 같이 4급 소장으로 승격

됨에 따라 직원들의 사기가 매우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 을 겪고 있는 부분은 어항 개발을 위해 투자할 곳은 많은 데 비해 예산이 제한돼 있어 지속적이면서도 계획성이 있 는 어항 개발을 하는 데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다는 점이 다.

이런 가운데서도 동해어항 사무소의 올해 사업중 특기할

만한 것이 있다면 아마도 처 음으로 청원 경찰 3명을 파견 했다는 점일 것이다.

예산을 비롯한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 다대포항, 방어 진항, 저동항 등 3개항에만 파견된 청원 경찰제도에 관한 효과가 높다고 판단되면 점차 예산과 그 숫자를 늘려 나갈 작정이다.

올해 동해어항사무소가 사 업을 펼칠 어항은 모두 9개 항, 지난해 15개항에서 6개항

이 줄어든 것은 역시 예산상의 문제점이 그 주류를 이루고 있다.

물론 93년의 예산은 85억 5,000만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약 4억원 가량 늘기는 했다. 그렇지만 그동안의 물가 상승률 등을 감안할 때 이 정도의 예산으로는 아쉬움이 많다.

이런 와중에서도 한가지 보람으로 느끼고 있는 것은 지난해 처음으로 수산청 제1종 어항으로 지정된 안목항, 수산항, 오산항, 구산항의 수축 사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동해어항사무소의 수축사업 예산은 53억원이고 유지 보강 사업은 32억5,000만원이다. 비율로 볼 때 다른 어항사무소보다 유지 보강 사업의 비중이 높은 편이다.

이는 지형학적으로 동해안이 어항을 개발하는 데 그리 용이하지 않고, 또 기존 어항이 비교적 규모가 크고, 역사가 길기 때문에 이의 유지 보강이 필요한 까닭이 주요 원인이다.

이를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사동항 방파제 수축사업에 30억원, 안목항 10억원, 수산항 9억원, 오산항 2억원, 구산항 2억원 등이다.

사동항은 지난해에도 약 30억원을 투입, 풍치 명태 오징어 쥐치어장의 전진기지로 개발하기 위해 과감한 투자를 하고 있는 중이다.

한편, 유지보강사업에는 다대포항 물량장 보강에 13억원, 대진항 준설에 6억원, 방어진항 방파제 보강에 10억원, 양포항 물양장과 후면매립에 3억5,000만원의 예산을 책정해 놓고 있다.

이 가운데 다대포항, 대진항, 방어진항은 지난해에도 유지 보강 사업을 했던 곳으로 어항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어항 개발은 수축도 중요하지만 유지 보강 역시 이에 못지 않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일본이 10년, 혹은 20년에 걸쳐 수축과 유지 보강 사업을 반복해 펼치는 것도 모두 이런 연유에서다.

그러나 아무리 훌륭한 계획이 있더라도 원천적으로 부족한 예산은 어항개발의 윤통성을 발휘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효용도면에서는 적지 않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를테면 지난해 수축사업을 벌였던 일부 어항이 올해는 일시적으로나마 그 사업을

'93년 어항별 예산

(단위:백만원)

구분	항명	예산
계	9개항	8,550
수축사업	5개항	5,300
	사동항	3,000
	안목항	1,000
	수산항	900
	오산항	200
유지보강	구산항	200
	4개항	3,250
	다대포	1,300
	대진(강)	600
방어진항	방어진	1,000
	양포	350

중지해야 되었기 때문이다.

동해안 거점어항 개발이란 의욕적인 구상과는 달리 이같이 지속적인 개발을 추진할 수 없는 예산상의 어려움은 어항사무소 종사자들을 곤혹스럽게 만든다.

따라서 진정으로 어민의 복지와의 문화, 생활수준을 향상시켜 우리나라 어항산업과 수산업에 이바지 하기 위해서는 국가 기간산업인 어항시설에 대한 투자가 중단없이 이루어져야 됨은 물론이다.

이런 전제없이 막연히 좋은 어항을 수축한다는 것은 이론상으로도 맞지 않으며 2천년대 세계 수산대국으로 부상하는 데도 적잖은 문제점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